

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 05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미래의 암베드카르가 될 거예요 | 변유경
- 09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키다마 학교 졸업식 | 김진진
- 13 **쑤리움쑤어, 캄보디아**
사업장 소개 | 문태훈
- 16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지난 3년을 마무리하며 | 임희성
- 19 **밍글라바, 미얀마**
밍글라바! 미얀마 JTS 왕초보 활동가 적응기 | 이모아



국내소식

- 22 **함께하는 사람들**
해외활동가를 소개합니다 | 편집부
거제도 애광원 봄 나들이 | 편집부
- 26 **함께 나누는 사랑**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저자 차드 명 탄, 기부금 전달 | 편집부
- 27 **특별기획**
2012년도 해외사업장 활동보고회



활동터소식

- 29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 / 미국 /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해외 파견 자원활동가
- 36 **후원인의 소리**
- 37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넬 2013. 5. 6 퍼넬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넬터 JTS
도운이 강선미, 양은지, 김옥희, 최기진, 서민정, 이미경, 최양희, 신인환, 최인준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전화 (02)587-8756 /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or.kr 홈페이지 www.jts.or.kr

/ 여는 글

늦게 찾아온 봄, 잘 맞이해주셨나요?

올 봄은 서서히 다가온 것 같아 한층 더 화사한 것 같습니다. 그에 발 맞춰 JTS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봄처럼 신규활동가들의 활동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국내에서는 2012년도 각 해외사업장 활동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사업장 별 프로젝트 단위의 진행과정과 현재 사업장의 모습들, 활동가 개인의 경험과 느낀 점을 공유하고, 현재 국내에서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활동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1년 간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김선욱 활동가의 소감을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난 3월에 새로 파견된 활동가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 활동가들의 눈으로 본 현재 사업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기대해주세요. 인도에서는 한국에서 오시는 방문단을 위한 환영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수자타 아카데미의 모습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JTS에서는 2013년의 사업이 시작되는 곳도, 작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외소식에는 미처 소개하지 못한 현재 사업에 관련된 소식은 활동터소식 코너에 실려 있으니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JTS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주시는 후원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한껏 푸르른 5,6월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JTS 소식지 편집부

사진 / 지안스님 끝맺는 말씀

미래의 암베드카르가 될 거예요 -- 암베드카르 기념일을 맞은 수자타 아카데미 풍경 스케치



“암베드카르 기념일에 멀리 한국에서 큰스님 오십분께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수자타 아카데미에 방문하실 예정이에요.” 인도에 온 지 이제 2개월. 제가 서툰 힌디어로 더듬더듬 말을 해도 교사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기념식인 월요일 당일에 대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냐고 걱정스레 물었더니, 대학교 1학년에 다니는 초등부 여교사 수만이 씩 웃으며 말합니다. “sisster, 그런 날에는 대학을 안 가더라도 행사에 참가하는 거죠.” 오, 이렇게 믿음직스러울 수가.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변유경 활동가

4월 14일은 불가촉천민 출신으로서 천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여 귀감이 된 암베드카르 박사를 기리는 기념일(자안티)입니다. 그리고 15일은 지안 스님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오신 조계종 교육원 스님 오십분께서 수자타 아카데미에 방문하시기로 한 날이라, 15일에 기념식과 환영식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는 30분 내외로 간소하게 진행되는 암베드카르 기념식이 총 길이가 1시간 정도 되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연습을 쉬었을 텐데도 신나게 어울려 춤니다.
모두들 와서 이것 좀 보라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처음 알아보는 행사에, 준비 기간은 1주일 남짓 되어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조금해하는 저와 다르게 행사 경험이 많은 교사들은 느긋합니다. “압까 마다드 짜히에(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항상 이 말을 외치며 교사들을 붙잡아서 회의를 잡았고, 일일이 물으면서 일감을 파악하고, 일을 나누어 맡기면서 준비가 되어갔습니다.

교사들은 스님들께서 많이 오신다니 신이 나는지 공연을 많이 준비하고 싶어 했는데, 저는 짧은 기간에 다 준비가 될지 내심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웰컴송(환영곡)팀 결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공연 총괄을 맡은 교사 디네쉬에게 “웰컴송은 하지 말까?” 살짝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 바로 고개를 젓습니다. 옆에 있던 공연 팀 교사들도 입을 모아 웰컴송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열정 앞에서 저도 부담을 덜하며 ‘그래, 해보재!’ 하는 용기가 났습니다.

공연 팀을 모집해 보니 총 다섯 팀입니다. 키 작고 앙증맞은 저학년으로 이루어진 꼭두각시팀이 있고, 언제나 명랑하게 인사하는 개구쟁이 남학생들은 모던댄스 팀이 있습니다. 능률한 고학년 남학생들은 태권도 팀에, 새내기 리더가 된 6학년 여학생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인도 전통춤을 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모신 8학년 웰컴송 팀까지. 전부 합치면 60명 정도, 하나같이 눈이 반짝 반짝거리고 신이 나 보입니다. 행사 전까지 3일 동안 매일같이 1시간 일찍 나와 연습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이 얼마나 왔을까 나가보니 웬걸, 남자 아이들은 거의 다 나와서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들 이렇게 빨리 왔을까? 출석부를 보니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이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바로 옆 마을 자그디스푸르에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불가촉천민 비율이 높은 마을이라 예체능 수업과 같은 혜택이 있으면 가장 먼저 받는 곳입니다. 이렇게 관중 앞에 서서 공연을 펼치는 기회가 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음악을 틀어주니 자동적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공연을 보자마자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잘 할 줄이야! 몇 달 동안 연습을 쉬었을 텐데도 신나게 어울려 춤니다. 모두들 와서 이것 좀 보라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15일 행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 줄을 세우고 무대 체크를 하는 와중에 스님들께서 벌써 도착하셨습니다. 이렇게 외부 손님이 많이 오시는 경우는 개교기념일 외에는 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낯선 지 긴장을 하는 게 보입니다. 저 역시 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리 챙기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고 데코

레이션 담당 교사는 오지를 않고 마이크는 갑자기 안 나오고... 자잘한 위기 속에서 그렇게 암베드카르 자안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암베드카르 사진 앞에 헌향과 헌화를 하고 학생들이 스님들께 환영의 의미로 꽃목걸이 증정을 하였습니다. 인도 JTS 대표이신 라니 시스터(김신아 활동가)의 축사 이후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이 평소에 땀고 다녔던 머리를 단정하게 풀어 내리고 웰컴송을 불렀습니다. 그 후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 아이들의 꼭두각시, 오늘 초등학교에 처음 등교하여 노란색, 초록색의 유치원 교복을 입고 있는 꼬마 아이들의 눈망울이 커집니다.

저와 함께 학교 총괄을 맡고 있는 현지인 교사 파완이 어린 시절 암베드카르가 천민으로서 겪은 차별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스피치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계급에 상관없이 함께 잘 어울려 지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곧 이어 모던댄스 팀의 경쾌한 춤이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연인데, 아이들 표정이 생동감이 넘치는 게 아주 귀엽습니다. 의자에 스님들께서 가득 앉아계시니 평소에 기가 펄펄 나는 아이들인데 약간 긴장한 듯 보이지만, 한껏 웃으며 잘 마쳤습니다.



모던 댄스를 지켜보는 스님들

수자타 아카데미를 방문해주신 조계종 스님 오십 분

“마음에 티끌이 남지 않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도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 태권도 공연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줄을 지어 한 명씩 뛰어서 발차기를 하고서 앞 드리는 공연 때는 관중도 아주 몰입하여 응원을 하셨습니다. 스님들께서도 성공할 때마다 환호를 하시며 즐거워 하셨는데, 그 덕에 우리 아이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마지막 공연인 여학생들의 인도 전통춤을 마치고 지안 큰스님께 한 말씀 청했습니다. 스님께서 흔쾌히 무대에 오르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 사람들의 지식수준과 밀접하므로, 열심히 배워 암베드카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따뜻한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이윽고 스님들께서 한국에서 직접 아이들에게 주고자 가지고 오신 스케치북과 크레파스 같은 학용품 일체와 기부금 전달식으로 전체 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식이 끝나자 한국어로 통역하며 사회를 보느라 한껏 긴장했던 제 입에서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 행사는 잘한 걸까?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지려는 찰나, 함께 준비했던 교사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진하게 웃으며 장난을 걸어옵니다. 오늘 공연을 했던 아이들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 눈을 보며 맑게 웃습니다. ‘나는 잘 해내겠다는 욕심이 있으니 긴장을 하고 자책을 하고 있구나.’ 마음에 티끌이 남지 않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도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성지순례단 스님들께서는 SBS에서 제작했던 수자타 아카데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시며 사전 학습을 철저히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행사 후에도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우리 학교에 많은 애정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큰스님이신 지안 스님께서는 이 수자타 아카데미가 한국 불교의 자부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 하늘처럼 맑은 아이들의 웃음이 제 얼굴에도 번지면서 우리 모두가 즐겁게, 더불어 함께 세상의 희망이 되어보자는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때로는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미운 마음을 내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교사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해나갈 수 있는 이곳은 수자타 아카데미입니다.

사진 / 키다마 학교 졸업식에서 (우) 김진진 활동가



키다마 학교 졸업식

지난 3월 1일 필리핀 JTS로 파견된 김진진 활동가의 활동 소감과 2/4분기 필리핀 JTS 사업장에서 보내준 소식입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김진진 활동가

필리핀JTS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막상 와보니 한국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하니까요. 필리핀 할머니도 한국 할머니와 같습니다. 마을에 가면 처음 보는 저도 반가우신지, 말은 통하지 않으니 손을 잡고 흔들기만 하십니다.

어딜 가나 “Are you single?”이냐고 꼭 물어보시는데, 스물여덟이나 먹고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면 기겁하시는 정도가 한국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한국보다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마을에 가면 스무 살 된 아기 엄마 학생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곳 사람들이 더 많이 웃고, 더 자주 인사한다는 점이 한국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해외봉사라고 하면 고생한다고 걱정하시기도 하지만, 호의호식은 아니어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산길을 가는 것은 조금 힘들지만요, 평지는 아무리 오래 걸어도 괜찮은데 오르막만 나타나면 여지없이 숨이 가빠져서 ‘꼬몽꼬몽’(굉장히 느린 현지 화물차입니다)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아직은 선배 활동가들을 따라다니느라 바쁘지만 저도 곧 혼자 해낼 수 있겠죠? 그럼 필리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 소식 필리핀 JTS 2/4분기 중점 사업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다물록(Damulog) 프로젝트, 둘째,



사진 / 다물록 상수도 공사 점검 중인 송지홍 활동가

실무자 숙소 건축, 셋째, 알라원 마을 다리 건축입니다. 다물록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 부키드논 주 최남단에 위치한 시로, 산후조리원, 묘목장 등을 짓는 코이카 프로젝트와 함께 오지 마을 학교 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올해 새로 학교를 지을 마을은 킬라올라오와 아폴란입니다. 얼마 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학교 건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킬라올라오는 원주민 마을이고 아폴란은 무슬림 마을인데 두 곳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킬라올라오 마을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음악과 춤과 웃음을 좋아합니다. 오후 내내 아이들과 어울려 전통 놀이를 하고, 또 한국의 전통 놀이인 말타기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어스름이 깔리고 누군가 크게 음악을 틀자 곧 신나는 댄스파티장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가져간 아이패드로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주었더니 모두 발랄한 포즈를 취하며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학교 건축 설명회에 앞서 전통 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하늘의 신이 학교 건축이 잘될지 안 될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대성공한다는 것이었지만요.

아폴란은 무슬림 반군 대장이 평화 협정 후 정착해서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일에 조직적으로 협동해서 일을 하는 것에 능숙한 반면, 여성과 아이들은 원주민 마을보다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섭게만 보이던 마을 리더가 멋지게 전통 무용을 추자 모두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또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인기이긴 한지 어느 마을에 가거나 ‘강남스타일’ 공연을 볼 수 있는데요, 아폴란에서도 역시 아리따운 여성분이 전통 무용과 섞은 ‘강남스타일’을 추다가 이재곤 활동가에게 춤을 청해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마을이지만 학교 건축에 대한 열의는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대다수 마을 주민들이 참



센터에서 내려다 본 농장 전경

석해서 학교 건축의 과정을 경청하고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아폴란 마을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웃 마을 살랏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살랏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서 살랏 학교 교사를 아폴란 학교에 파견하겠다는 반가운 약속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을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이 감동적입니다. 저희도 마을 주민들과 한마음이 되어 학교가 무사히 완공되고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주민의 말처럼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교육은 마을 발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자 숙소 건축도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무자 숙소가 완공되면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JTS센터는 원래 목적으로 농업 기술 및 교사 훈련 등 현지인을 위한 센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라원 마을은 JTS가 2005년도에 학교를 건축한 곳입니다. 마을로 연결되는 다리는 2006년에 지었는데, 재작년 12월 파블로 태풍 때 부서졌습니다. 알라원은 ‘하늘 아래 첫 마을’이라고 불릴 만큼 오지인데다 다리까지 부서져 그간 마을 주민들이 여간 불편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다리 복구 공사가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주민 참여를 통해 다시 한 번 주민들이 단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알라원은 카모테라는 고구마를 주식으로 삼을 만큼 빈곤한 마을인데요, 최근 마을 주변에서 지천으로 자라는 야생 커피로 소득 증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재배할 때 얼마나 많은 농약이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자연이 키워낸 이곳 알라원의 커피는 정말 맑고 향기롭습니다.

2/4분기 사업 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필리핀 JTS의 사업 프레임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은 오랜 분쟁 지역입니다. 무슬림 반군은 작년에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고, NPA라는 반정부군은 얼마 전에도 델몬테 지역을 공격해서 걱정입니다. 이 지역에 빈곤과 문맹을 퇴치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저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생활 소식 처음 센터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훨씬 큰 센터의 규모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농업 등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훈련 센터로 지어진 JTS 센터는 3층 규모에 강당 등이 구비된 매우 큰 건물입니다. 리보나 시 실리폰 지역에 있으며, 해발 1,07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산 아래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만 평 규모의 시범 농장에는 옥수수, 상추, 배추, 양상추, 청경채 등 각종 채소와 곡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 작물과 농사 방법을 연구하는 곳인 동시에 저희의 부식도 공급해주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편 자주 강한 비가 내려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송지홍 활동가가 비닐 대신 코코넛 껍질로 작물을 보호하는 친환경 방법을 연구해서 실험 중입니다. 코코넛 껍질은 비를 막아주고, 속에 있는 섬유는 좋은 퇴비가 된다고 합니다.



사진 / 코코넛 껍질로 시험 재배 중인 양상추

매주 상추를 따서 판매한 돈으로 돼지 사료를 삽니다. 센터에는 소 세 마리, 돼지 두 마리, 토끼 다섯 마리, 닭 열세 마리, 염소 네 마리가 있습니다. 모두 퇴비 생산 및 가족을 통한 소득 증대 사업 시범 모델로 키우는 것입니다. 특히 염소와 돼지는 새끼를 낳으면 마을에 분양할 계획인데, 사이가 좋지 않은지 새끼를 낳지 않아서 송지홍 활동가의 근심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을 먹이는 것도 일입니다. 최근 토끼가 새끼를 낳아서 전보다 훨씬 풀을 많이 따서 주어야 합니다. 토끼는 귀엽기라도 하지만 닭 사료 주는 일은 좀 무섭습니다. 대장 닭이 성질이 사나워서 사료를 주러 가면 어서 내놓으라는 뜻인지 마구 덤비며 공격합니다. 손도 꼬이고 발목도 핏줄이 나니 「동백꽃」의 점순이처럼 “이 놈의 닭!”하고 복복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여간 날쌔게 아니어서 혼내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입은 한 달 내내 밥 당번을 해야 한다고 해서 손에 물마를 날이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간 이곳 생활에 잘 적응했는지, 활동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새삼 점검해보게 됩니다. 밥 당번 하는 동안 송지홍 활동가는 저에게 식모라는 치욕적인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2년을 산

송현자, 배명숙 활동가가 보살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낯선 땅에서, 연령도 성별도 하던 일도 모두 다른 활동가들을 잘 조율하며 사업을 이끌어가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지요. 잘생기고 일도 격실격실 잘하는 이재곤 활동가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작년 학교 준공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에는 자신감도 많이 늘어서 ‘우리 재곤이가 달라졌어요’를 찍고 있습니다. 임선호 활동가는 알라원 다리 건축에 쓰일 지게를 제작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지게가 제작되면 시멘트며 무거운 자재를 산길로 나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처음에 약속한 3년을 채우고도 더 활동하기로 한 송현자, 배명숙 활동가 역시 존경스럽습니다.



사진 / 킬라올라오 마을에서 아이들과 놀이 중인 (좌) 임선호, (우) 이재곤 활동가

저희와 함께 일하는 다물룩 시 공무원 제시는, 우리의 활동을 힘들지만 긴 여행 (Journey)라고 말합니다. 곳곳에 장애가 있고, 또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긴 여정이지만, 그래도 여행이라는 말 속에는 즐거움과 설렘이 있습니다. JTS의 활동 역시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신나는 여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농(Ka Nang)마을 전경



사업장 소개

안녕하세요. 지난 3월 9일 JTS 캄보디아 사업장으로 파견 온 문태훈입니다. 파견 나올 때 페이스북에 “잘 다녀오겠습니다.”하고 인사드린 다음 소식지 글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간 잘 계셨는지요.

함께하고 글쓴이 캄보디아 JTS - 문태훈 활동가



JTS 캄보디아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수도 프놈펜에서 580km정도 떨어진 라타나끼리주(Ratanakiri Province)입니다. 라타나끼리주는 캄보디아의 다른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낮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캄보디아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 산지에는 산악소수민족들이 넓은 지역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주민들은 수십 ~ 백 수십 가구 단위로 모여 살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주 민족인 크메(Khmer)와는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마을에는 학교가 멀거나 없어서, 소수민족에 대한 따돌림 때문에 배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JTS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는 대상이 이 산악소수민족 아이들입니다. JTS에서는 주 교육청과 함께 학교가 필요한 마을을 찾아가 답사를 하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학교건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답사 라오스는 캄보디아와 국경을 마주한 나라로, 라타나끼리주에서는 자동차로 5시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JTS에서는 캄보디아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인접국가인 라오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라오스의 참파삭주(Champasak Province)와 아타푸주(Attapeu Province)로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도착한지 3일된 초보 활동가였지만 운 좋게도 답사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답사에는 JTS 이사장 법륜스님과 박지나, 김기진 한국JTS 대표, 정철상 캄보디아JTS 대표를 비롯한 캄보디아JTS 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법륜스님께서는 현장 활동가에게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통해 활동가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사업 진행시 유의해야 할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학교 건물만 짓는 것이 최종목표가 아니라 학교를 지으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식, 참여의식, 정리정돈 하



는 습관 모두가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성과달성에 집착하기보다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방문 라오스 답사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건축이 진행 중인 마을과 앞으로 예정된 마을을 방문 하면서 JTS 사업에 참여한 캄보디아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민 분들, 교육청 직원 분들과 주 교육청장님, 군과 면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두루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달프놈마을 마을방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마을은 달프놈(Dal Phnom) 마을입니다. 우선 다른 마을보다 거리가 멀고 길이 험해서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마을이었습니다. JTS 사무실에서 면(Commune)청 소재지까지 들어가는 데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 거기서 또 30분을 더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넓어진 것도 최근 이 지역에 카사바(Cassava)나 고무나무 농장을 개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부터라고 합니다.

라타나끼리는 캄보디아의 다른 지역보다 숫자는 적지만 JTS를 비롯해 Care, Plan, GAA 같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답사를 다니다보면 이들 단체를 통해 우물이나 임시학교를 지원받은 마을도 찾을 수 있는데, 달프놈 마을은 접근이 어려운 환경 때문인지 아직 지원을 해준 단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 마을방문에서는 달프놈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JTS 활동가가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니?”하고 물으니 마을 어른이 “아이들이 학교가 무엇인지 모릅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고 당황스러웠지만, 잘 쓰이러 왔으니 지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까바르는 ‘How are you?’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지난 3년을 마무리하며

인도네시아 JTS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임희성 활동가께서, 올해 진행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JTS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인도네시아 사업에서 무엇을 느꼈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게 될 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네시아 JTS – 임희성 활동가



지난 3년간 해왔던걸 저 나름대로 되돌아보고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더도 덜도 없이 딱 제 수준만큼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 한 채 짓고 수로를 파는 일들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단체가 지향하는 바가 얼마나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순히 뭘 지어주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하며, 아이들은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JTS의 설립이념이 더 많은 지역의 더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되돌아 보는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명	주택	학교	보건소	관개수로	도로	농기계지원	긴급구호
성과	60채	7동	2동	1개소	1개소	4개 마을	-

2010~2012년 인도네시아 사업 성과

2013년은 이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식수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식수지원 방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에 있는 깨끗한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마을까지 파이프를 연결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말은 쉽게 했지만, 막상 현장에 가 보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말 마실 물로 적합한지에 대한 수질측정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해 줄 만큼 수량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합니다.

땡땡땡마을 유치원



우바마을 관개수로 공사



학교 및 보건소 건축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학교와 보건소에 학용품과 의료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건물만 지어주고 끝내는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완공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도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며 저소득층 학생이나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꾸준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시골에 거주하는 부녀자들의 취업 및 소득창출을 위해, 재봉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각자 출자금을 낸 일정수의 조합원이 모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조합원들에게 재봉기술과 협동조합법 교육을 제공하고, 작업장 건축자재와 재봉틀을 지원해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의 운영이 잘 된다면, 마을공동체 유지에 큰 버팀목이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좀 더 원활한 활동을 위한 법인등록과 지난 3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발간, 그리고 좀 더 많은 지역의 어려운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 사업 지역을 확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JTS 후원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루어 졌다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밍글라바! 미얀마 JTS 왕초보 활동가 적응기

지난 3월, 6개월 간 한국 JTS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미얀마 JTS로 파견된 이모아 활동가의 '왕초보 활동가 적응기'입니다. 기후로 인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잘 지내고 있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함께하고 글쓴이 미얀마 JTS - 이모아 활동가

주민 교육



땡- 오늘도 새벽녘부터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 덕분에 일찍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거, 모닝콜이 필요 없는 자연 그대로의 알람이네요.

밤새도록 찌렁찌렁 울리는 미얀마 불교의 법문소리, 모기떼의 습격, 그리고 밤늦게도 떨어지지 않는 더운 기운. 밤새 뒤척이며 쉽게 잠에 들지 못했지만 앞으로 미얀마에서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도 피곤함은 잠시, 잠시만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벌써 제가 이곳에 온 지 3주가 됐어요. 언제나 해외에 파견이 되나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시간이란 것이 참 신기하게 눈 깜박할 사이에 저를 미얀마에 데려다 놓더라고요. 뭐, 덕분에 더위와 고군분투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혹서기예요. 얼마나 더운지 한국의 여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열기와 뜨거운 햇볕이 금방이라도 녹여버릴 듯 내리쬐는데, 미얀마에 온 지 이틀 만에 목덜미에서 흥부까지 심하게 땀띠가 났습니다. 모기에게도 여름잡아 700번 정도는 물렸고요. 혈액부족으로 쓰러지지 않은 제 자신이 대단할 정도예요. 이렇게 파견 신고식을 크게 치루고 나니, 이젠 미

얀마가 저를 받아 주려는 듯 땀띠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모기도 전보다는 적게 물고요.

더 미얀마스러워 지도록 노력해 봐야겠어요. 아직은 외국인 티를 다 벗지 못해서 마을 주민들이 저를 보며 신기한 듯 쳐다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낯 외국인이 아닌 같은 동네 주민이라고 생각할 날이 오겠죠? 그래도 “밍글라바”라고 인사하는 낯선 제게 웃어주는 미얀마 주민들이 있어 전 매우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보면, 미얀마 사람들은 정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음식 대접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챙겨 주는데, 마치 하나라도 더 먹이지 못해 안달 난 엄마를 보는 것만 같답니다. 마을에 방문할 때면 이런 엄마의 마음을 어김없이 느낄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놓으시는데, 식사 전에 빠짐없이 챙겨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미얀마 전통 스낵인 참기름에 절인 녹차와 기름에 튀긴 망콩, 마른새우를 곁들여서 먹는 음식과 생선을 말려 양념에 재 놓은 음식(우리나라 쥐포를 짬뽕하게 양념한 맛이에요), 집 앞 바나나 나무에서 딴 똥똥한 바나나, 미얀마 전통 차 혹은 실온에 보관해 뜨거운

미얀마 다과



진 탄산음료 등 식전 다과상을 한상 차려주신답니다.

식전 다과만으로도 벌써 배가 불러오지만, 식전 음식을 먹고 나면 바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 나오십니다. 미얀마는 중국음식과 비슷하게 기름에 튀기고 볶는 음식이 대부분이라서 음식 자체가 아주 기름지답니다. 이런 기름진 음식에 접시 한 가득 밥을 퍼주시는데, 식전음식 후 바로 먹는 음식이라 배불러 버거울 때가 많지만 그런 제 사정을 모르시는지 한가득 퍼주시곤 해요.

처음에는 잘 몰라 퍼주시는 대로 먹다보니 소화 가 잘되지 않아서 한동안 고생을 했어요. 물론 그 후 미얀마 스텝에게 속성으로 배운 말로, “와바비, 포바비(배불러요, 충분해요)”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아쉬운 듯 “싸바, 네네 싸바(더 먹어요, 조금만 더 먹어요)”라고 말씀하실 정도이니, 이 넘치는 정을 조금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정이 넘치는 미얀마에 있노라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겠다 싶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미얀마는 밥을 먹지 못해 생명을 잃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과거엔 쌀 생산량이 세계 3위 안에 들 정도로 쌀 생산량이 어마어마한데다가, 마을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감과 관심으로 마을 내부의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보살피고 있기 때문이죠.

고아가 되어도 마을 주민들과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챙겨주거나 보살펴 주기 때문에 굶주림에 시

달리는 아이들은 많지 않지만, 낙후된 교육환경과 부족한 의료 보급으로 인해 제때 배우고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은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힘내서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날씨가 덥고 왕복하는데 10시간에서 34시간을 3~4가지의 교통편을 갈아타며 이동해야 하는 먼 길이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착해 마을 주민들을 마주하는 순간 그 동안의 고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저 먼 길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마을 주민들을 보자니,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 뭉클함과 뿌듯함, 그리고 활동가로서의 강한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런 경험을 하고 있노라니 파견 된 지 얼마 안된 왕초보 활동가지만 벌써부터 미얀마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지어도 서툴고 더운 날씨와 느끼한 미얀마 음식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많지만, 조금씩 왕초보에서 초보로 벗어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미얀마 왕초보 활동가 이모아 드림.

탄터빈마을 어린이



해외활동가를 소개합니다

2012년 3월, 인도네시아 JTS로 파견되어 일 년간 활동하신 김선욱 활동가께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알아보까요?



김선욱 활동가

1. 어떻게 JTS와 함께 활동하게 되었나요?

지역 정토 법당을 통해서 정토회를 처음 알게 된 후 백일출가를 하게 되었어요. 백일출가 프로그램 중 NGO실습이 있는데, 그 때 실습을 JTS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JTS에는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해외 자원봉사를 한 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백일 출가 회향 후에 지원하게 되었고, 이렇게 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회계와 법인 설립을 담당했고, 사업장 관리도 경험했습니다. 회계는 KOICA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5개 사업소의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한 회계 정리를 했고, 인도네시아 사업장이 아직 인도네시아에 법인 등록이 되지 않아서 법인 등록절차 조사와 법인 등록업무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90%가 무슬림이고 자연이 풍요롭다보니 외국 NGO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국제 NGO 등록 보다는 인도네시아 국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와주실 분을 찾고 만나고 설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좋은 분을 만나서 국내법인 설립과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거의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서 사업장 2곳을 맡아서 관리도 했습니다. 사업장 관리 업무로는 자재를 주문하고 검수하며, 사업장의 건축물들이 공정 기간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때 마을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곳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3. 파견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언어와 음식이었던 같습니다. 현지 고용이나 자원 봉사자가 없이 모든 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문자는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음도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되어서 언어 자체는 쉬운 편이었지만,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 도중 논쟁이나 설득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부족한 언어구사 능력이 아쉬웠습니다.

해외 봉사를 다녀와서 5~6kg 정도 빠졌는데, 개인적으로 입이 짧은 편이기도 하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보다 사먹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해외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어서, 3개월 정도 남겨놓고는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커졌습니다. 비록 인

도네시아 음식을 잘 먹는 편이고 입에 맞는 음식도 있었지만,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4.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일이 궁금해요.

저는 비록 더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지만, 앞으로 식수지원 사업을 할 예정이고 법인 설립도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서 신청을 하면 5개월 내로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하기 위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5. 해외 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다는 입장에서 국내 봉사와 해외 봉사는 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해외 봉사는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다 보니 좀 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을 하다보면 보면 안 풀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흔히 한국과 비교하기 쉬운데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로 다름을 먼저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곳에서 주민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러 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도우러 갔으니 먼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저 마음을 열면 현지 주민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때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 줄 수 있고요. 물론 이런 과정이 있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비록 1년 만 했지만 그러한 자세로 꾸준히 3년을 한다면 JTS 원칙에 맞는 꼭 필요한 사람을 찾고 도와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제도 애광원 봄 나들이

맑은 하늘에 따뜻한 햇볕이 내리쬘던 지난 4월 25일, JTS와 자원봉사자들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시설 거제도 애광원과 함께 시설 거주인들을 위한 봄나들이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애광원 거주인들의 건강을 위해 고칼슘 두유 1,728리터와 아기두유 288리터를 전달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편집부

거제도 애광원과는 JTS의 이사장이신 법륜스님 (2002년 수상)과 애광원의 김임순 원장님(1989년 수상)께서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신 것을 계기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여름, 태풍 매미로 인해 거제도가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애광원 거주인들을 위해 JTS가 식수를 긴급 지원하였고, 그 후로 거동이 불편하여 평소에는 외출이 어려운 애광원 거주인들을 위해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JTS 봉사자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하루 동안 거주인들의 외출을 돕는 나들이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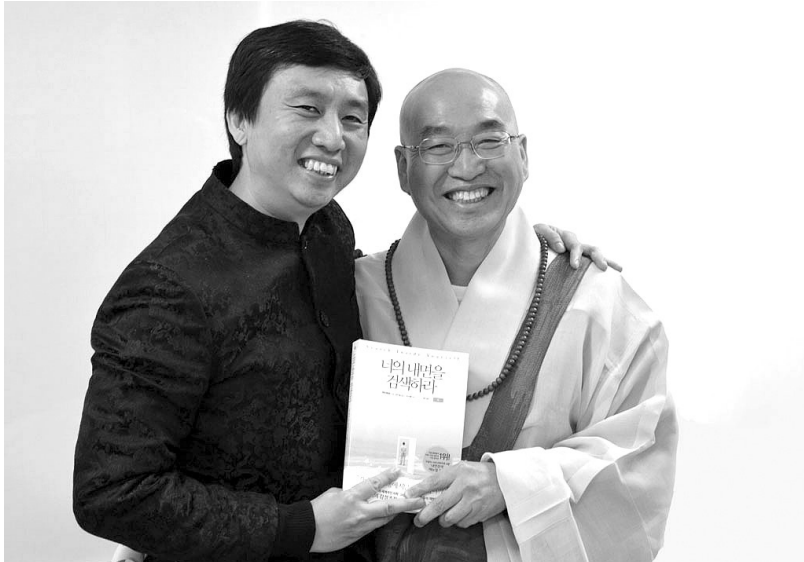
애광원 봄나들이 행사는 애광원 원생들의 감동적인 "마법의 성" 합창으로 문을 열었고, 시설 견학을 거쳐 거주인들과 동반한 애광원 근처 조각공원 나들이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봄나들이 도중에는 원생 한 명과 JTS 자원봉사자 두세 명이 함께 조를 이루어, 보물찾기와 사진 찍기 등의 야외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일기예보와는 다르게 다행히 맑고 따뜻한 날이어서 애광원 거주인들과 활동가 모두에게 뜻 깊고 즐거운 봄나들이가 되었습니다.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저자 차드 멩 탄, 기쁨금 전달

지난 3월 26일, 구글 엔지니어이자 명상 전문가이며,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의 저자이기도 한 차드 멩 탄(Chade-Meng Tan) 씨가, JTS를 방문하여 강연회 수익금 1,000만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편집부

차드 멩 탄과 법륜스님



차드 멩 탄 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마음을 열게 만들어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만들고 싶다는 신념을 가지고, 구글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와 단체에도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이루는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차드 멩 탄 씨는 이러한 강연의 수익금과 책의 인쇄 전액을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부금은 제4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한 강연의 수익금으로, 한국에서 번 돈은 한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 싶어서 JTS에 기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내면의 행복과 기쁨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연민과 친절함을 가진다면 그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할 겁니다. 그럴 경우 역시,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다 그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기부금은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2012년도 해외사업장 활동보고회

지난 3월 21일부터 한국 JTS에서는 한 주에 두 번 정도 각 사업장 별 2012년 활동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잠시 귀국한 활동가들이 2012년 한 해 동안의 사업 진행 과정과 그 결과,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혼자 파견되어 사업장을 개척한 활동가부터 오랜 기간 활동하며 사업장의 내실을 다지고 있는 활동가 까지, 여러 활동가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다음은 각 활동가들의 활동보고회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미얀마 JTS 김성현 활동가 저희는 ‘하루 1달러 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양곤의 물가는 식사 한 끼에 1달러여서 실제로 그렇게 지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얀마 JTS는 한국 JTS와 같이 100%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스텝 한 명과 제가 작성하는 회계 장부를 대조해서 재정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외식을 줄인다든지, 답사를 할 때에는 도시락을 준비하는 등, ‘하루 1달러 생활’의 원칙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JTS 배명숙 활동가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기 운동”은 2010년 처음 파견 되었을 때부터 3년간 제가 진행해온 사업의 이름입니다. 학교를 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구류와 동화책, 교복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동화책은 엄청나게 반응이 좋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화책을 본 것 입니다. 아이들이 동화를 접하면서, 정서적으로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 교복은 기본적으로 사서 입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 형편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복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등교할 때 뿐 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교복만 입고 다녀서, 수요일에는 사복 입는 날로 정해서 교복을 세탁 하계끔 할 정도였습니다.



캄보디아 JTS 박병수 활동가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물을 달라”, “화장실이 어디냐” 정도의 기본적인 캄보디아 말이 되지 않아서, 문맹인 내가 문맹을 퇴치하러 왔나 하는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도 생겼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출되는 액수가 큼니다. 공사현장에서 자재가 필요하다고 자금을 요청 하거나, 진행상황에 따른 기술자의 임금요청과 자재상의 요청 등 모든 과정에서 돈을 요청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항상 그런 상황이 이어지자 ‘내가 돈줄로만 보이냐?’ 하는 제 생각 안에 간혀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또 같은 상황에 부딪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JTS의 활동이념과 원칙에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로 둘러싸여 많은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JTS 오성근 활동가 관개수로 공사를 할 때였습니다. 5~6학년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콘크리트를 비비고 자기 머리통만 한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보통 쉬엄쉬엄 일하는데 이 아이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아주 열심히 일을 돕고 있기에, 저도 아이를 따라서 같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돌을 수레에 싣고 비벼진 콘크리트를 나르고, 해질 무렵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특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꼭 한번 안아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이 날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시꺼멓고 뚱뚱한 외국인 형이랑 같이 흙장난 하듯이 마을 관개수로 공사를 함께 했다는 것을.

해외, 국내 JTS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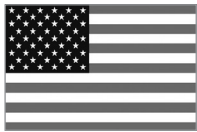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orea 국내소식

1. 하몽 FOOD

4월 16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하몽 FOOD의 개업식에 오신 분들께서 1,00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금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안마 JTS의 사업 중 하나인 탄터빈 다리 재건축에 쓰일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다리를 선물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USA 미국

1. “책이 희망입니다” 캠페인

미국 JTS 에서는 지난 1월부터 영어동화책을 모아서 필리핀 오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책이 희망입니다” 캠페인을 북미주지역정토회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특히 오지나 위험한 분쟁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자녀들에게는 교과서나 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소식을 현지 활동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미국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책을 보내 오셨습니다.

모두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이번 ‘책이 희망입니다.’ 동화책 보내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아진 책들은 필리핀 오지의 마을 어린이들에게 어둠 같은 문맹으로부터 벗어나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ndia 인도



암베드카르 영정에 헌향하시는 지안스님.

1. 감사와 존경을 담아 – 암베드카르 기념식 – 4월 15일 암베드카르 기념식

지난 15일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불가촉천민출신으로 천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운동에 기여했던 암베드카르를 기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날 새내기 1학년을 포함하여 400여명의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권도 시범, 인도 전통춤, 모던 댄스 등 그동안 갖고 닦은 장기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성지순례 겸 한국에서 방문해주신 조계종 교육원 국장단 스님 50여분도 함께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스님들을 맞이하는 환영노래와 꽃목걸이를 준비하였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기부금 전달식과 더불어 지안스님의 격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 암베드카르처럼 나라와 이웃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지원하겠습니다.



사용했던 숙소를 스스로 청소한 뒤 기숙사 앞에서 전체 컷

2. 이제 우리도 어엿한 리더예요.

– 4월 5~6일 신입 6학년 남자 리더 대상 T.T.T(Train the Teacher) 수련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생이던 아이들이 이번 학기부터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범적인 교사가 되도록 마음가짐을 다져야 한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를 함께 배우기 위해 4월 5~6일 1박 2일에 걸친 수련을 실타타 하우스(기숙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처음 들어와 보는 기숙사가 신기한지 둘러보다가 신이 나서는 ‘시스터~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돼요?’ 귀엽게 묻는 아이들이 이럴 때는 아직 교명이 없지만, 이내 수련이 시작되어 명상을 하고 교사의 의미, 놀이 수업 방법, 과목별 교수법을 선배 교사들에게 배우며 열심히 필기하는 학생들은 또 리더처럼 의젓합니다. 교사 프라모드가 직접 요리한 저녁식사가 어찌나 맛있었는지 소감 나누기 때 식사가 맛있었다는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즐겁게 놀면서 성숙해가는 우리 아이들이 참 대견합니다.



신생아 체중조사

3. 배고픈 아이없이 모두 무럭무럭 자라나길(저체중아 조사)

– 3월 29일~4월 11일 저체중아 조사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0~5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WTO 기준에 맞춰 영양상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늦게 진행되었지만 매년 상반기에는 0~5세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WTO기준에 맞춰 영양상태 조사를 합니다. 올해는 조금 늦어 3월 29일 시작해서 4월 11일 끝났으며 총 759명의 아이들이 참가했습니다. 그 중 심각 저체중아로 분류되는 아이들은 총 8회에 걸쳐 식량(쌀, 달)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 외 2등급 저체중아들도 1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선생님들이 조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짜르카 공장 견학하는 모습

4. 동게스와리 마을 자치를 위한 물레(짜르카) 공장 견학

– 4월 13일 짜르카 공장 견학

동게스와리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물레(짜르카)공장을 만들기 위해 마을 주민과 함께 짜르카 공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짜르카는 주민자치를 위해 마하트마 간디가 발명한 실 짓는 기계입니다. 이를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친환경적이고, 전기나 기름이 들지 않아 운영경비도 절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을 소득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계를 들여오기 위해 공장 측과 8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였고 마을주민 의식교육과 기술교육 등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짜르카 공장으로 동게스와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길 바랍니다.



게 모임으로 구입한 행사 그릇 물품

5. 공동구매(게 모임)를 통한 마을생활 개선

이번 해에 새로 진행 되는 사업 중 하나가 마을 ‘게 모임’입니다. 탈곡기, 못자리, 잔치 그릇 등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가격이 비싼 물품을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10명이 그룹을 만들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하고 필요한 돈의 50%를 걷으면 JTS에서 나머지 50%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요즘 인기있는 게 모임은 인도의 각종 푸자(행사)와 결혼식에 사용되는 대형 식기들입니다. 결혼 시즌이 다가 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물품을 잘 사용하여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행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재봉반 졸업식 단체컷

6. 재봉반 아주머니들의 뿌듯한 졸업식

지난 1년간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거친 재봉반 수강생들이 드디어 졸업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느질도 서툴렀던 그녀들이었지만 지금은 셔츠, 바지, 치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마을 유지원에 필요한 교복을 졸업생들이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재봉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명 정원으로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가장 먼 자르하리 마을에서도 매일 10km이상을 걸어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초등, 중등부 학생들 교복도 우리 졸업반 어머님들께서 만들어 주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Philippine 필리핀



블루안 교사 지지가 동화 구연을 하는 모습

1. 3월 5~6일 블루안, 파궁퓹 학교 동화책 전달

블루안 학교와 파궁퓹 학교에 동화책을 전달했습니다. 동화책은 영어와 따갈로 그어로 쓰여있으며,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공용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키다마 학교 졸업식 중 교사 제리와 졸업생

2. 3월 14~19일 JTS 지원 학교 졸업식 참석

필리핀에서는 3월 말에 학기가 끝나고 6월에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JTS가 지원한 여러 학교에서도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일 키다마 학교 : 12명 / 15일 미카실리 학교 : 졸업생 3명
18일 블루안 학교 : 5명 / 19일 사라와곤 학교 : 9명

3. 학교 건축 설명회

2013년 학교 건축 대상 마을인 킬라올라오와 아폴란에서 각각 14일, 25일에 학교 건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학교 건축 설명회는 주민들과 함께 전체 일정을 공유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는 마을 축제와 함께 진행하여 더욱 즐겁고 풍성한 설명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7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킬라올라오 학교 건축 설명회 중 전통 의식

4. 4월 2일 실무자 숙소 건축 시작

JTS센터 내 실무자 숙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실무자 숙소는 단층으로 총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7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실무자 숙소 부지 정비 중

5. 4월 8일 대학생 인턴십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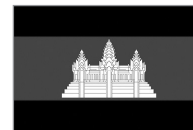
가가얀 데 오로(Cagayan de oro) 시 소재 새비어 대학 Development Communication 전공 학생 2명이 JTS 인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6주간 JTS 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라원 다리 복구 공사 및 다물록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사진 및 영상 자료 제작, 주민 인터뷰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붕괴된 알라원 다리

6. 4월 9일 알라원 다리 복구 시작

2012년 겨울 태풍 파블로에 붕괴된 다리 복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리보나 시청의 푸드 포 워크(food for work) 협조와 알라원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며 6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Cambodia 캄보디아



법륜스님과 JTS 대표단의 라오스 답사

1. 대표단 방문 & 라오스 답사

법륜스님과 한국 JTS 대표단은 사업현황 점검 및 베트남, 라오스 신규 사업지 답사를 위해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캄보디아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신규 사업장 답사

2. 13년 신규사업장 답사

캄보디아 JTS는 4월 7일부터 13년 신규사업장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는 언동미어군(Andoung Meas District)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과 협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Indonesia 인도네시아



우바 관개수로 준공식

1. 지난 3월 28일과 30일 양 일간에 걸쳐서 2012년도 프로젝트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우중빠당, 꼬또 말린땅 지역 보건소 2개소, 우바-따빠 갈루왕 관개수로 3,240m 구간, 띠꾸우따라, 땡꽁땡꽁 유치원 2개소 준공식 개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사장인 법륜스님과 김기진 대표님, 박지나 대표님이 참석하셨고 현지 지방 정부 관계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Myanmar 미얀마

1. 쫘차웅 다리 재건축(긴급복구)

지난 2012년 우기 때 홍수로 파손된 쫘차웅 다리가 현재 주민 참여로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파손된 기존의 나무 다리보다 훨씬 튼튼하고 넓은 콘크리트 다리를 통해, 4월 말 완공 이후부터는 경운기도 지나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동안 비싼 운임비를 주고 배를 임대해서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는데, 이제는 경운기로 보다 손쉽고 안전하며 저렴하게 농작물 및 기타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뻬에지, 탄터빈 다리 재건축(긴급복구)

2012년 우기 때 홍수로 완파된 다리 재건축이 첫 발을 댈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들은 대나무를 엮어 만든 다리여서 매년 홍수로 파손되거나 미끄러워서 통행이 위험했습니다. 이에 JTS는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다리 재건축을 결정했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주민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재건축위원회 구성 등의 사전 작업을 완료하였고 재건축 사업에 관한 MOU 체결도 마쳤습니다. 현재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전공사와 임시 다리 건축을 마치는 대로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다리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타공학교 재건축 회의

3. 타공 학교 재건축

부실공사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었던 타공 초등학교는 2012년 홍수 시 지붕 아래까지 침수되었던 관계로 외벽이 심하게 기우는 등, 붕괴위험이 더 심해져 내년에 폐쇄(폐교) 예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JTS는 해당 학교를 관할 타운쉽 교육청 직원과 구청장, 엔지니어를 통해 재건축 및 리모델링 관한 견적, 설계 등을 통해 복구 공사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기자재 지원 25개 학교 답사

4. 25개 학교 교육 기자재 지원

짜웅공 타운쉽 교육청 직원과 함께 지난 홍수로 파손된 교육 기자재 수에 관한 실사 모니터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학교를 공무원과 함께 방문하여 수요 조사가 끝나면 책걸상, 칠판, 교탁을 중심으로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드라이존 미양타운쉽 구청 회의

5. Dry Zone 답사 및 미양 타운쉽 도로 정비 사업

Dry-Zone은 1년 내내 가뭄이 계속되는 물부족 지역인 미얀마 중부 지역(마그웨이, 사가잉 Division)을 말합니다. 제일 가난하고 척박한 사업지를 찾아서 지원사업을 한다는 JTS의 이념에 따라 장장 17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미양 타운쉽의 사업 답사를 2차례 마쳤습니다. 현재 미양 타운쉽 구청장 및 엔지니어,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지역의 도로 정비 사업에 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식수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웅산장군 나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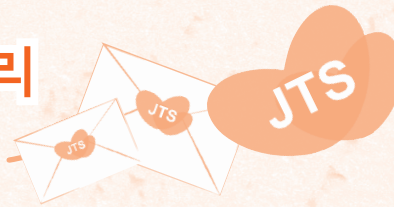
6. 아웅산 장군 나루터 재건

미얀마 민족 영웅인 아웅산 장군이 연설을 했던 아웅산 나루터는 짜웅공 지역에 매년 반복되는 홍수로 인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짜웅공 타운쉽 구청장 이하 공무원, 지역 관계자 및 아웅산 나루터 재건 위원회가 JTS에 사업 지원을 요청, JTS의 자체 지원과 짜웅공 타운쉽 주민들의 무보수 노동참여로 나루터 재건이 4월 초 완료 되었습니다. 아웅산 장군이 나루터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연설을 했던 관계로 짜웅공 타운쉽 주민들에게도 역사적인 의미가 큰 해당 나루터는 4월 27일(28일)에 완공식이 예정 중입니다. 완공 이후에 해당 나루터는 경비선이나 구조선 등 특수목적에 위한 전용 나루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인도	김정준, 김신아, 주연우, 최동호, 박성재, 김연희, 변영경, 이유진
필리핀	이원주, 이규초, 송현자, 배명숙, 송지홍, 이재곤, 임선호, 김진진
캄보디아	정철상, 박병수, 이대원, 문태훈
인도네시아	임희성, 오성근, 김선욱
미얀마	김성현, 이모아

후원인의 소리



북한 어린이를 위해 투명하게 의미있게
사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재윤-

딸 수영의 취업 성취와 건강 발원.
설 명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안중백-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옛날에는 보릿고개 즈음이 아닌가 해요? 제가 잘 몰라서~
북한도 더 어려운 것 같고, 5살 우리아이 북한아이들에게 ‘쌀 먹으세요’그러래요..
-심은아-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한해 되었으면 합니다.
-곽도순-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시고,
이웃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이인정-

정초기도 나 자신부터 돌아보며
나 자신을 사랑하며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봉하승-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조상님의 이름으로
지구촌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설아-

겨울이 가고 꽃샘추위가 찾아오네요^^ 보살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날 보내세요^^
-김경미-

제게 귀한 분이신 김진철 선생님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그분 공덕을 조금이라도 쌓아드리고 싶습니다.
-남리라-

어려운 이웃에게 조그만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안중백-

스님법문 동영상으로 도움 많이 받고 삽니다.
수강료로 냅니다 ㅋㅋ
-환정의-

법륜스님 통해 부처님 법 만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김가민-

죽사 신도님들의 기도금 일부입니다.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발원합니다.
- 죽사신도일동 -

특별후원금 (2013. 2. 01. ~ 2013. 3. 31.)

2월
북한결연

김정현 25,000

김주연 5,000

김주용 100,000

김진영 24,000

김영주 10,000

강문중 100,000

강미선 63,000

강영주 19,580

강정옥 200,000

강창형 150,000

강천근 100,000

고주현 6,000

곽도순 50,000

구영희 100,000

권교중 50,000

권보민 50,000

권영민 90,000

권현숙 1,000,000

권호주 50,000

금오공대 희망 50,000

길미숙 50,000

김경미 30,000

김경희 100,000

김낙춘 234,000

김동균 10,000

김문희 50,000

김미숙 50,000

김미옥 174,030

김민숙 30,000

김선희 10,000

김성남 130,000

김성수 30,000

김성순 800,000

김성희 50,000

김숙희 100,000

김순란 1,000,000

김순주 10,000

김승년 10,000

김승희 30,000

김신호 10,000

김연옥 30,000

김영규 300,000

김영범 70,000

김용규 100,000

김윤경 310,000

김윤희 50,000

김은정 50,000

김이숙 1,000,000

김인숙 50,000

김인영 50,000

김인희 50,000

김점희 20,000

김정미 200,000

김정현 25,000

25,000

5,000

100,000

100,000

10,000

100,000

2,000,000

100,000

2,000,000

2,906,480

깨달음의 장 960차

100,500

50,000

50,000

30,000

10,000

50,000

100,000

180,000

100,000

30,000

100,000

50,000

100,000

70,000

10,000

1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



김순옥	300,000	안정자	10,000	장정희이상백	
김승희	30,000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0,000		
김양은	31,400	1,000	정희준	300,000	
김영길	80,000	영기황종택조	50,000	조종화	100,000
김영호	30,000	오미경	10,000	조한석	30,000
김옥경	20,000	오세숙	1,419,000	주명자	10,000
김용규	50,000	우혁준	10,000	자원준	50,000
김용선	100,000	유계순	100,000	지은아	1,000,000
김원식	72,820	유재민	1,000,000	지호선님	200,000
김은숙	30,000	윤영옥	100,000	차윤실	28,000
김은연	100,000	윤병진	50,000	천형준	100,000
김응	55,560	윤원정	100,000	최근수영가왕생극락	100,000
김민숙	50,000	윤지수	50,000		
김창구	75,000	이경훈	10,000	최영진	10,000
나경원	50,000	이길재	50,000	최재호	30,000
나희원	50,000	이모아국제개발정착금		최재용	500,000
노정애	10,000	431,600		최찬일	61,640
대구강민주	50,000	이문금	50,000	최해원	100,000
대전불불대일동		이미선	36,780	최희석-김보디아 학교지	
206,000		이만영	10,000	기	10,000,000
대학생선재수련팀		이상은	100,000	최희석	10,000
207,000		이서현	20,000	통영선우들	25,000
두북정토마을보시금		이서현-1	50,000	하지민	10,000
463,500		이순금	20,000	해피빈	122,800
딸 수영의 취업성취와 건		이승옥	100,000	홍승우	10,000
강 발원	50,000	이영숙	10,000	홍영희	30,000
무명	80,000	이원형	10,000	황설아	30,000
문대훈국제개발정착금		이윤희	200,000	황지현	10,000
431,600		이은숙	300,000	황지현홍플라스상품권	
문해란	50,000	이정자	35,920	1,000,000	
민경애	50,000	이창주	300,000	희망누리상담원	250,000
민지원	212,980	이원자	300,000		
민해정	20,000	이태욱	1,000,000		
박명순	5,000	임진아	10,000		
박별님	30,000	임혜수	50,000		
박삼식	97,190	임형섭	10,000		
박선미	51,050	임춘기도회향	김청구박		
박승원	10,000	명순김재홍김효정이정애			
박준빈	10,000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박찬영	200,000	사년이되길발원합니다.			
백경민	300,000	20,000			
백인순	300,000	입춘기도회향 봉하승김			
봉하승	23,000	해영봉채린봉태완 정애			
서강숙	46,000	없이건강하고안정되며행			
성유경	50,000	복한게사년한해가되길발			
소진호	30,000	원합니다	20,000		
손영희	100,000	장영민	1,000,000		
송부영	18,610	장태숙	50,000		
송선숙	55,200	강 발원	2,000,000		
신순이	28,040	정명덕	100,000		
아이(지메듀케이션)선(주)	50,000	정민주	100,000		
안미향	25,860	정연수	45,370		
안수정	127,500	정은미	10,000		
		정인호	3,000		

윤원정-결혼 20주년을	노신섭	이태근
기념하여.	다카하시(이봉식)	이태조
이서현	30,000	이현숙
이원형	10,000	익명
이재근국제개발정착금	170,000	일개106차
431,600		일개107차
조한석	20,000	임영철영가님 극락왕생
홍승우	10,000	기원
황지현	10,000	임재식
		장말분
		정교필
		정민주
		정민호
		정진순님84세 생일기념
		400,000
		정태모
		정현옥
		조미숙
		조원희
		조정숙
		조해조
		조창희
		죽사신도일동
		최근대
		취기숙
		최복열
		최정기
		최중하어머님패유발원
		1,000,000
		태한성
		하경선
		하봉선
		하승근
		한승희-큰아들 생일기념
		100,000
		함보은
		해대영
		하은희
		황성민
		황정의

안선영	248,560	안준희	10,000	양승중	300,000	엄애순	100,000	엄홍석	500,000	오인숙	1,000,000	오한길	50,000	유순복	30,000	유희정	50,000	윤경화윤성원윤진옥	200,000	윤영실	250,000	윤영희	50,000	윤화자	100,000	이곤	200,000	이규자	100,000	이명숙	20,000	이명임	100,000	이서현	30,000	이성화	30,000	이소영	3,000,000	이소정	100,000	이순이	1,000,000	이윤석	50,000	이은희	1,000,000	이정숙	50,000	이종훈	50,000	이주형	37,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태근	150,000	이태조	300,000	이현숙	50,000	익명	111,000	일개106차	578,000	일개107차	307,000	임영철영가님 극락왕생	기원	30,000	임재식	300,000	장말분	200,000	정교필	50,000	정민주	100,000	정민호	10,000	정진순님84세 생일기념	400,000	정태모	21,210	정현옥	20,000	조미숙	500,000	조원희	20,000	조정숙	50,000	조해조	50,000	조창희	1,000,000	죽사신도일동	500,000	최근대	200,000	취기숙	150,000	최복열	20,000	최정기	100,000	최중하어머님패유발원	1,000,000	태한성	100,000	하경선	50,000	하봉선	200,000	하승근	100,000	한승희-큰아들 생일기념	100,000	함보은	100,000	해대영	10,000	하은희	10,000	황성민	5,000	황정의	2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 모자보건

권학대	4,000	김기민	30,000	김민철	10,000	김성남	190,000	김승희	30,000	김영호	30,000	김인숙	50,000	김진철	50,000	노신섭	30,000	덕성여대불교동문회	
-----	-------	-----	--------	-----	--------	-----	---------	-----	--------	-----	--------	-----	--------	-----	--------	-----	--------	-----------	--

100,000	박금자	50,000	박지현	20,000	박진순	1,000,000	변영철	500,000	봉하승	5,000	서장익	5,000	안중백	30,000	엄홍석	100,000	윤명실	250,000	이명숙	30,000	이서현	30,000	정민호	5,000	정민호	10,000	정진순님84세 생일기념	400,000	정태모	21,210	정현옥	20,000	조미숙	500,000	조원희	20,000	조정숙	50,000	조해조	50,000	조창희	1,000,000	죽사신도일동	500,000	최근대	200,000	취기숙	150,000	최복열	20,000	최정기	100,000	최중하어머님패유발원	1,000,000	태한성	100,000	하경선	50,000	하봉선	200,000	하승근	100,000	한승희-큰아들 생일기념	100,000	함보은	100,000	해대영	10,000	하은희	10,000	황성민	5,000	황정의	2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 및 제3세계

(주)아모레퍼시픽	280,000	감사합니다	6,000	강규홍	20,000	강민경	40,000	강수정	51,690	고규혁	20,000	고혜원	50,000	권나연	100,000	권보민	19,920	권재영	61,000	김기민	20,000	김갑산	30,000	김미란	10,000	김병진	100,000	김산	10,000	김성옥	100,000	김성초	100,000	김소연	2,000,000	김소영	70,000	김승희	30,000	김아사	50,000	김옥경	200,000	김인숙	50,000	김재학	100,000	김정자	10,000	김정호	500,000	김정희	1,688,415	김주빈	150,000	김청구박명순복위 선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상님과유주무주교훈영	임홍석	100,000	한경희	50,000	가의 왕생극락발원	오정숙	30,000	한정임	100,000	김태형	10,000	함형화	10,000	김태희	1,000,000	우삼이	28,100	해피빈	122,600	김형수	300,000	유동인	75,000	허서연	20,000	김형수	300,000	유진명	53,790	허은희	10,000	개장910차	360,000	윤명실	250,000	홍민기	100,000	달리말1	100,000	이광준	30,000	황석연	30,000	동래어린이이법회회향기	이명숙	30,000	황성민	5,000	남-수지타이카데미	1,200,000	100,000	황윤주	10,000	100,000	황은숙	80,000	100,000	황은숙	50,000	100,000	황정희	10,000	100,000	황종희	3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상님과유주무주교훈영	임홍석	100,000	한경희	50,000	가의 왕생극락발원	오정숙	30,000	한정임	100,000	김태형	10,000	함형화	10,000	김태희	1,000,000	우삼이	28,100	해피빈	122,600	김형수	300,000	유동인	75,000	허서연	20,000	김형수	300,000	유진명	53,790	허은희	10,000	개장910차	360,000	윤명실	250,000	홍민기	100,000	달리말1	100,000	이광준	30,000	황석연	30,000	동래어린이이법회회향기	이명숙	30,000	황성민	5,000	남-수지타이카데미	1,200,000	100,000	황윤주	10,000	100,000	황은숙	80,000	100,000	황은숙	50,000	100,000	황정희	10,000	100,000	황종희	3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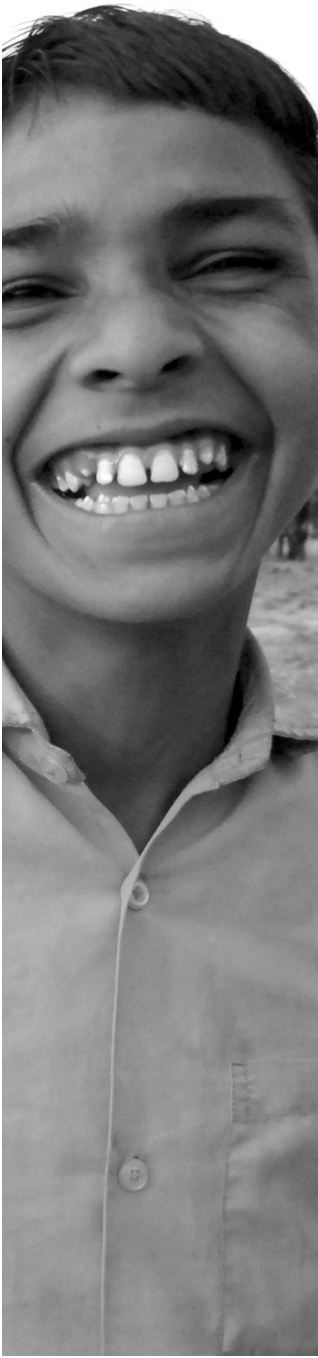
조상님과유주무주교훈영	임홍석	100,000	한경희	50,000	가의 왕생극락발원	오정숙	30,000	한정임	100,000	김태형	10,000	함형화	10,000	김태희	1,000,000	우삼이	28,100	해피빈	122,600	김형수	300,000	유동인	75,000	허서연	20,000	김형수	300,000	유진명	53,790	허은희	10,000	개장910차	360,000	윤명실	250,000	홍민기	100,000	달리말1	100,000	이광준	30,000	황석연	30,000	동래어린이이법회회향기	이명숙	30,000	황성민	5,000	남-수지타이카데미	1,200,000	100,000	황윤주	10,000	100,000	황은숙	80,000	100,000	황은숙	50,000	100,000	황정희	10,000	100,000	황종희	3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리핀

은주	300,000	김승희	30,000	박별님	30,000	박성호	10,000	변영철	500,000	서장익	10,000	소진호	30,000	안중백	30,000	윤명실	250,000	이명숙	20,000	이서현	30,000	중앙승가대학교 3학년 스	님 일동	150,000	이원형	10,000	정민호	5,000	황정의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긴급구조

이하윤	289,080	김승희	30,000	박별님	30,000	박성호	10,000	변영철	500,000	서장익	10,000	소진호	30,000	안중백	30,000	윤명실	250,000	이명숙	20,000	이서현	30,000	중앙승가대학교 3학년 스	님 일동	150,000	이원형	10,000	정민호	5,000	황정의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JTS 후원금 (2013. 1. 01. ~ 2013. 3. 31.)

미국 JTS 1 월		김정욱 \$ 40	김윤진 \$ 100
Eun Jeong Soh		김진엽 \$ 100	김은경 \$ 500
	\$ 100	김형주, 김봉숙 \$ 100	김지현 \$ 190
김명	\$ 50	도성희 \$ 10,000.00	마이클 양 \$ 31
김선화	\$ 100	마이클 양	무주상 \$ 30
김소행	\$ 50	무주상 \$ 114	민윤기 \$ 100
김숙현	\$ 60	문화경 \$ 100	박경배 \$ 80
김순미	\$ 50	박경배 \$ 80	박근애 \$ 10
김순미	\$ 50	박숙현 \$ 100	박숙현 \$ 100
김원태	\$ 30	박숙현 \$ 100	박승용 \$ 30
니은영	\$ 100	박승용 \$ 30	박현수 \$ 120
노은득	\$ 300	박현수 \$ 190	백은영 \$ 250
마이클 양	\$ 31	송호성 \$ 30	송호성 \$ 30
박경배	\$ 80	신정애 \$ 314	심주영 \$ 60
박태현	\$ 30	엘레아정도희	심태희 \$ 400
		\$ 10,000.00	유성묵 \$ 20
송호성	\$ 30	이규염 \$ 100	윤영수 \$ 100
원명남	\$ 100	이동영 \$ 400	이규염 \$ 100
이규염	\$ 100	이우봉 \$ 30	이명숙 \$ 500
이동영	\$ 300	이종경 \$ 300	이우봉&이노숙 \$ 30
이영현	\$ 40	이한나 \$ 130	임선희 \$ 30
최경숙	\$ 30	임선희 \$ 30	정수길 \$ 50
최나리	\$ 100	장해숙 \$ 200	정승연 \$ 60
최남기	\$ 250	전명우 \$ 50	정시연 \$ 30
최만성	\$ 20	정명지 \$ 100	조갑제 \$ 500
최명숙	\$ 1,000.00	정수길 \$ 50	최만성 \$ 20
최수영	\$ 30	정수환 \$ 10	최영태&김성순 \$ 150
한해진	\$ 500	주성신 \$ 30	최하나 (김순돌) \$ 140
홍화선	\$ 100	최만성 \$ 20	하정욱 \$ 100
		하해숙 \$ 120	하해숙 \$ 80
		한성후/이종순 \$ 100	한해진 \$ 100
		한해진 \$ 100	해인스님 (무량지) \$ 100
미국 JTS 2 월			
Irene Shin	\$ 200		
Kyung J Kim			
&Whayoun Kim	\$ 5		
Chong Sik Cho&			
Young Kyung Jang	\$ 50		
K. Chang	\$ 40		
Linda H Davies	\$ 100		
Mujusang 저금통	\$ 84		
김동석, 니은영	\$ 100		
김수경	\$ 20		
김순미	\$ 100		
김영석	\$ 2,000.00		
김원태	\$ 30		
김윤진	\$ 100		
미국 JTS 3 월			
이동영	\$ 400		
김명	\$ 150		
Kyung J Kim	\$ 5		
Linda H Davies	\$ 50		
Sung and Hannah	\$ 60		
Won	\$ 60		
김미경	\$ 50		
김선화	\$ 100		
김선희	\$ 20		
김성호&김오필	\$ 300		
김수현	\$ 100		
김숙현	\$ 60		
김순미	\$ 100		
김원태	\$ 30		



나눔저금통 현황 (2013. 2. 01. ~ 2013. 3.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제

비너스기케 12,060

광주

2012년금부초등2학년4반과담임 168,030 김건영 29,500 무명68,880 박진성 32,610 오서준5,180 이상열 33,000 이상훈 71,770 이은정 18,000 이은정김행복) 16,000 차영희 29,200 최두희 21,900 한봉길 63,060 황경임146,300

구미

구미법당 29,390 무명81,690

대구

(사)가나특수교육원 9,780 강민기(2) 12,540 공유경 39,810 권오재, 백명숙 61,600 김래영31,460 김은희 26,950 김종호 17,950 대구법당 20,530 대구법당 2,800 도원행 15,090 무명 27,960 박미숙 43,470 박소영 33,020 빠리바게트 31,320 손창원 35,130 신미경 31,210 윤경화45,940 윤성원 31,800 윤진 옥 30,520 이지훈 29,710 임금실 47,000 임금실 53,500 정지운 50,320 지산동열린약국 28,390 철곡 어린이집22개 291,050 (경환 13,940 김사는 10,000 김중현 19,210 노현승 7,400 마영민 7,020 무명 17,410 무명 15,370 무명8,430 박민주 4,410 박시환 15,700 박재민 11,060 송윤진 19,000 신은철 22,690 안예은44,120 왕현서 4,120 왕효서 2,990 원해빈 10,580 이도엽 6,490 이세연 7,500 최한결 13,610 최호진11,250 한경애 18,750 홍도연 21,950

대전

김종년118,850 무명 16,300 무명 20,250 무명 17,230 무명 16,200 무명 28,960 민수경 20,740 이상갑 19,710 이선연 21,020 이소초 27,780 이준희 26,750 정윤호 13,490 타스테이션 43,460 허영미 24,670

동래

강민정49,010 강민정 24,980 강은주 49,320 권가운 3,300 권가운 14,370 김주자 24,150 김현우 40,110 무명 21,150 무명 25,740 무명 1,490 무명 34,550 무명 19,830 무명 28,960 무명 29,500 문해숙 29,600 박세화 22,240 박소연 25,230 방황자 45,330 부곡초6-4 33,160 성영애 45,270 심연주 23,210 양산중 13,940 이진호 34,770 이진호 37,280 최정숙 28,970 최정숙 40,300 한정묘해 20,260

마산

김용대 66,740 내서초등6-1반 26,000 무명 49,670 박정주 40,720 이우희 32,850 장채민, 장기울 72,290 조수빈 26,150 조재영31,930 코오롱 1차선정이네 16,470 코오롱빙고피자41,680

목포

탐앤탐스 72,700

서울

강동균 21,640 강명우 24,870 강연수 16,920 권유지 74,140 김경선 39,640 김미호 14,970 김성운 23,120 김성종7,367 김세훈 27,920 김진석 14,000 무명 192,600 무명 264,633 문리옥 22,030 문복연 25,000 박재민 10,970 백성우 23,500 백효진 4,480 봉녕사 50,880 손영희 21,360 신희현 6,000 심순덕 18,670 안낙천 27,700 양정은 23,170 양정은 26,860 윤미정 15,150 이명숙 33,250 이원배 27,760 이장순 35,280 이진옥 17,880 임숙례 79,620 정호찬 23,610 GS25 12,000

수원

무명4개 101,290 민지선 23,420 양성희 23,780 이말순 20,490 최연지 5,440

순천

무명 13,590

울산

건우하우징랜드 3,210 권보민 19,920 돈배돈가 11,060 무례주르전하점 62,120 무명 18,200 무명 17,150 무명 38,960 여천1급자동차정비공업사 6,520 울산대학 119,130 윤덕자 113,340 이인숙 20,360 임순화 32,100 전춘우 30,200 파스타부우노 18,860 해운대심계탕 18,370

원주

무명 172,150

제천

권영화 19,380 무명 23,200 박용수 46,200

창원

김숙임 71,120 김중혜 24,360 김지숙 25,370 박선미 51,050 배수민 25,710 신순이 28,040 오주승 61,800 이미선 36,780 이승찬 51,310 전찬웅 26,530 허영주 32,140

청주

곽영애 32,250 대신의원(이황취) 32,920 박노옥 55,250 백수정 10,200 안순자 6,150 유영미24,100

윤귀애 48,400 조연화 50,300 조태진 8,910 최지환 32,230 한동섭 39,610

통영

경상대학교에코캠퍼스 26,120 무명 38,300 무명 177,570 무명 81,470

해운대

강소담 30,410 김유경 19,140 김정현 23,530 무명 73,490 무명3개 38,740 법당저금통5,000 서정위 59,340 예정이 29,920 이문희 52,600 정정화 22,810 정광희 24,480 정양심27,500 조광현19,510 해운대법당 67,910

가타

강동농협달성지점 63,200 경기도송우중학교이동현 42,840 권희재 39,900 김광제 39,750 김철희 12,000 무명 34,880 박효빈 17,420 불교서적출판원 118,190 사프하나 37,230 신강선 6,267 요양병원간호사 19,000 윤성규 15,000 윤성은 15,000 이경호 31,370 이규영, 강경화 63,910 이응노 34,400 이재환 19,100 조기봉 32,430 탐앤탐스서울역점 14,340 한승명실래 24,820 함형화 42,000 홍옥순 27,600

거리모금 현황

2013년 02월 01일부터 2013년 03월 31일까지
2/23거리모금 91,200 거제 60,000 거제중앙초등 6-4 91,490 구미 325,760 구산중208 112,350 노원 156,920 대구 1,358,970 대전 110,000 마산 1,291,310 분당 603,900 신내 60,980 서울 926,190 수원 248,850 울산 213,590 인천 72,200 입재식모금 477,970 전주 130,920 진건고등학교 662,060 청원 337,730 평택 483,120 해운대 103,05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 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